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문제¹⁾

—80년대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김 정 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 무엇이 문제인가?

—서론에 대신하여

‘장서문제’만큼 사람의 마음을 들들 긁어놓는 것도 없다. 생각하면 할수록, 들여다 보면 볼수록 분통이 터지는 것이 바로 이 ‘장서문제’이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도대체 도서관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주로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의 사람들이다— ‘장서문제’를 이처럼 내팽개쳐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장서문제는 ‘기본문제’가 아닌가? 그것은 결코 말단지엽적인 문제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반드시 이 단계에서 해결하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사람들은 입만 벌렸다 하면 정보화시대라고 한다. 정보의 폭발이라고도 하며 정보의 홍수라고도 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화산이 터졌으니 모두 모여 불구경이나 나가자는 것인가? 큰 물이 났으니 물구경이나 나가자는 것인가? 도대체 도서관의 서

가를 이처럼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자들은 저렇게 실망하고 돌아서는데도 입만 열었다 하면 폭발이요 홍수이며 그 다음은 아무런 조치도 없으니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수십년간을 앵무새처럼 같은 말, 같은 논조를 되풀이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묻는다. 그대들은 담당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그대들이 일의 담당자임을 자임할 때 과연 그처럼 안이할 수 있는가? 과연 그렇게도 대안이 없는가? 오늘 이나라 대부분의 도서관 속에 버려질 대로 버려지고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된 도서관 서가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로 그 소속을 밝히는 사람들이 언필칭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정보화시대라고 파악하면서, 동시에 황폐할 대로 황폐한 서가를 배경으로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우스운 그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서 무슨 직업적 힘이 생겨나겠는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는 또한 무슨 힘을 실어주겠는가? 나는 이 우스운 그림은 결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거기에는 반드시 관련

1) 앞서 발표된 나의 “대학도서관운동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부산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보」(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집(1990) : 1-32와 이번의 이 ‘장서문제’논문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문제의 두 핵심부분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논문은 내가 그동안 관심을 기울여 온 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우리식’ 정서와 논리구조로 우리의 도서관 문제를 들여다 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다. 나의 또다른 논문 “대학도서관발전의 계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30권 5호(1989, 9-10) : 2-25 역시 ‘자기준거적 학문’, ‘우리식 문헌정보학’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식 학문방법론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조를 바란다.

자들간의 어떤 거대한 음모, 사기, 직무유기와 같은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²⁾

장서다운 장서, 서가다운 서가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서관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 분야의 알량한 직업꾼들에게는 또 하나의 귀신이 뒤집어씌워져 있다. 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첨단'을 말하며, '미래'를 말하며 '21세기'를 말한다. 그들은 이것을 제주도에 모여서 말하고 설악산에 모여서도 말한다. 서울에서도 말하고 부산에서도 말한다. 첨단의 매체를 말하고 21세기 사서의 지위와 도서관의 위상을 말한다. 그들은 정말 바쁘다.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말 그들은 수고가 많다. 가관인 것은 이 뒤뜰린 흐름의 영향을 받아,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직 관장들과 갓 입학한 대학생들까지도 그런 식이다. 어안이 병병해진다. 그들은 마치 미래는 자기들의 것인양 말하기도 한다. 정보의 시대 21세기는 자신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말하든 '주역'이란 표현을 빼놓지 않는다. 미래를 말하고 21세기를 말할 때 그들에게 이 표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보루인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다. 왜 그들은 오늘의 도서관 현장과 그 현장의 현단계를 말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현장, 현단계에 너무나 크고 많은 '기본'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21세기로의 올바른 전진도 있을 수 없는데도, 이것들은 다 외면하고 내팽개쳐 둔 채 정신이 온통 '첨단'과 '미래'와 '21세기'에만 쏠려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장서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야말로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도피'인가? 판단의 착오인가? 무엇을 잘못먹은 일종의 집단마취 현상인가? 오늘날은 오늘이 없는 사람들

에게 미래다운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도 우스운 그림 한 장을 본다. 무언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전체에 맞는 방안이 내려지고 있지 않다. 텅텅 빈 서가를 뉴미디어로 채운다고 해서 21세기가 보장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 비오는 날 꺾다리 셋이 다리 밑에 모여 앉아 소주를 마시며 '미래의 세계는 우리의 차지'라고 외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사실 나는 몇해전 '기본' 중의 '기본'인 장서문제를 학생들 속의 강의에서만 떠들 일이 아니라 문장으로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1990년 여름의 일이다. 그것은 내가 부산대에서 자료 관련 강의를 한 5~6년 하고 났을 때였다. 그것은 부산대 캠퍼스에서 1987~1988 두 해 동안 학생들에 의한 '도서관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도서관 부관장으로 끌려 들어가 1988~1989 두 해 동안을 뚱뚱 도서관 현장 속에서 보낸 뒤 풀려난 직후의 일이기도 하였다. 나로서는 어느정도의 참여관찰이 있고난 후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장서문제를 문장으로 찬찬히 제기한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테에 마를 손에 쥐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왜였을까?

우선, 나는 이 너무나 중요한 기본과제가 너무도 지엽적으로 방치된 상태 앞에서 기가 막혔다. 글이고 뭐고 잡히지도 않고 나는 이내 분노에 휩싸이고 마는 것이었다. 배에 밤이 들어가야 힘이 날 것 아닌가? 이렇게 텅텅 빈 배에서 무슨 힘이 생겨날까? 이 서가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는가? 나는 그만 해결해야 할 과제의 크기(enormity)와 복잡성(complexity) 앞에서 얼마 가지도 못해 걸음이 얼어붙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다루어야 하

2) 이 부분과 관련되는 대학도서관의 '사람의 요소', 즉 관리자(관장), 중간관리자(과장, 주무), 평직원 문제에 대한 내 나름의 분석이 위에 나온 나의 논문 "대학도서관운동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1990)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특히 이 논문의 pp. 27-30에 나오는 '아류들간의 공생관계'의 분석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는 어느 때 이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대학도서관의 행정직 근무자의 기능과 역할,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들도 엄연히 대학도서관 문제, 특히 '장서문제'의 한 당사자 내지 관련자로서 분석되고 비판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나는 두려움 속에서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의 대학도서관 장서문제는 외국의 교과서나 논문 따위를 갖다 대어서는 전혀 진단도 해결책도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과제였다. 거기에는 너무나 ‘우리다운’ 너무나 ‘한국적인’ 대학도서관 제도와 조직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으며, 사서진의 요소, 행정진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 포기와 무관심도 있었다.³⁾

지금인 1993년 12월, 나는 1990년 뜨겁던 여름에 손에 잡았던 테마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그때 쓰다만 원고를 다시 꺼내 펼쳤다. 나는 지난 3년여 동안에도 자료관련 강의를 계속 하였다. 1991년 11월 말부터 1993년 11월 말까지는 전에 내가 부관장으로 끌려 들어가 징역을 살았던 부산대 도서관에 다시 끌려 들어가 있었다. 이번에는 관장이라고 했다. 나의 도서관 장서문제에 대한 참여관찰이 한 단계 더 깊어진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제야 이 테마를 정면에서 냉정하게 바라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그동안 나에게서 과제에 걸맞는 문장 스타일의 갈등과 제시기술의 방법론적인 고심이 있었던 듯 하다. 오늘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나는 말하자면 장서문제는 그것의 열키고 설킨 깊은 곳까지 나 스스로 자멸질을 하여 내려가 거기에 숨겨진 비밀의 실마리를 몇갈래나마 표면에 건져 올리는 식의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 같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건져 올린 소량의 수확물에 일종의 인류학적이며 고고학적인 해석작업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인 것이다.

2. 나는 어떻게 보았는가?

위에서 말하였듯이, 1990년 여름에 시작했다가 그 동안 완성을 보지 못한 채 묻어 두었던 원고를 다시 꺼내 보니 거기에 내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그 때까지 내 속에 축적해 온 대학도서관 장서에 대한 나의 느낌과 관찰의 일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이것을 사료로써 사용해 보려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 다소 무리를 느끼는 독자가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나의 문장 스타일은 실험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큰 실험 속의 작은 실험쯤으로 생각하고 관대하게 넘어가 주기를 바란다. 한가지 독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의 문장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의 진실을 이해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의 끝까지는 1990년 여름 내가 만들어 두었던 문장을 약간의 가감을 거쳐 소개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사람들은 이같은 일을 저질렀을까? 이것이 과연 삶의 권위있는 과정으로서의 일(work)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은 유희(play)를 한 것일까? 이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방치의 결과일까? 기술부족의 결과일까?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사보타지의 결과일까?

이와같은 것들이 이른바 서울지역을 제외한 한강 이남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국제화시대의 대학, 세계 속의 대학을 지향한다고 하며 대학원 중심의 유니버시티를 꿈꾼다고도 하는 국립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에 대한 나의 솔직한 느낌들이다. 이 느

3) 우리나라 도서관 문제의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한낱 서구이론의 검증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목과 정서를 기초로 ‘우리 식으로’ 보고 설명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나의 부산대 생활 전기간의 과제가 되어오고 있다. 나는 이 문제를 80년대 이래 부산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 설강해 오고 있는 ‘제 3세계 도서관방법론’, ‘도서관사상기연구’, ‘문헌정보학사연구’를 통하여 학생들과 더불어 토론하며 고민해 오고 있다. 나와 학생들의 이 부분의 활동은 부산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이 펴내는 「학기논고집, 1989-1991」(1991), 「학기논고집」 제 2집(1992), 「학기논고집」 제 3집(1993)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칼럼 “나는 어떻게 ‘제 3세계 도서관방법론’을 말하게 되었는가?” 「도서관문화」 34권 4호(1993, 7-8): 2-4도 참조하라. 우리의 이같은 공동노력과 관련하여 우리는 얼마전 「우리 학문의 길」(지식산업사, 1993)의 저자인 조동일 교수로부터 공감과 격려의 편지를 받은 바 있다. 「학기논고집」 2집과 3집을 보고 보내 준 편지였다. 그날 공동작업실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 꽤나 들떴었던 것을 기억한다. 또한 우리는 최근 한국사회학회 회장이 된 신용하 교수의 취임사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동아일보, 1993, 12, 14)에서도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다.

김들은 지난 1984년 이래 내가 여러가지 입장에서 이 대학도서관 장서를 관찰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의 느낌에 지나친 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령 나의 평가에 공정하지 못한 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우리나라 제 2의 도시로 와서 이 대학도서관의 서가 앞에 한번 서보기를 바란다. 본관의 1층 참고자료실, 논문자료실, 2층 연속간행물실, 서지조사실, 3층 서양자료실, 4층 동양자료실, 그리고 과학분관, 의학분관의 서가들 사이를 한번 골고루 돌아보기를 바란다. 가능하다면 000대에서 900대까지를 참을성있게 한바퀴씩 둘러보기를 바란다.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거기서 과연 무엇을 보는가? 눈 앞에 제시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양심적으로 말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결코 현학적으로 나가지 말자. 상투적으로 되지도 말자. 설부르게 통계를 뽑은 다음에 말하려는 따위의 기만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말자.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보자. 눈에 들어오는 대로 말해. 해보면 될 것이 아닌가?

아마도 대학도서관의 장서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희미하게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눈 앞에 전개되는 실상 앞에서 아연실색하게 될 것이다. 일대 파탄이 벌어져 있음을 말하게 될 것이다. 약간의 지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학도서관의 서가 앞에 서는 일, 서가 사이를 걷는 일이란 곧 카오스의 현장(chaotic situation)에 속하는 일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비극을 아는 순간일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한 일 앞에서 사람이 허무를 느끼고 절망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1989년 말 현재 장서 52만권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장서 52만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 의미를 똑똑히 말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런 식의 장서라면 52만권이면 무엇이하며 또 152만권이면 무엇이하겠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대학도서관의 서가인가? 이곳은 폐품수집

장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이곳에는 무명의 저자, 편자, 역자, 무명의 작가, 시인, 수필가가 이처럼 판을 치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그들은 많은 경우 다섯권, 열권 또는 수십권씩의 복본의 형태로 서가를 점유하고 있는가? 왜 연속간행물 수집은 또한 이러한가? 왜 이처럼 결과가 투성으로 나오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사람들은 이 대학의 장서로는 요즘 유행을 타고 있는 공산권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가? 제 3세계 연구도 어렵다고 하는가? 노동연구, 여성연구도 곤란하다고 하는가? 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연구조차도 어렵다고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장서 속에서 사람의 의도성(intention), 직업적 관심(professional concerns)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장서에 전문가의 손에 의한 어떤 체계적이며(systematic), 지속적인(continuous) 노력의 흔적이 있는가?

대학도서관 장서(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얼마나 해방적인 이름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만신창이, 이 왜소성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이 인간이 연출한 비극의 배후는 무엇인가? 이 저열성과 어둠의 배경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이 얼굴 두꺼운 사람들. 후안무치한 사람들. 현장이 이러할 때 그 잘났다고 하는 이 나라 도서관계, 학계의 실천가와 이론가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위에서 표출된 나의 관찰과 느낌들 -의구심, 좌절, 분노- 이것들이 부산대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도서관 장서문제에 관한 나의 논의의 출발점이다. 그것들이 나의 동기이다.

사실 이 장서의 과제는 전에 내가 나의 스타일대로 제기한 적이 있는 '사람'의 문제와 더불어 이 나라 대학도서관운동의 장래가 걸린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 문장에서 시도한 것은 대학도서관운동에 있어서 그 추진 '주체'(central

forces)가 되는 사람의 문제를 실천적 입장에서 분석해 본 것이다. 거기서 내가 지적한 것은 대학도서관에는 그 과업의 규모와 복잡성에 비하여 그것을 감당하는 일꾼의 직업적 소피스티케이션(sophistication)의 수준이 매우 낮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학도서관이 현실적으로 대학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엄청난, 대학도서관의 존재가 그 자체 속에 함장하고 있는 의미와 가능성의 증충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속에서 움직이는 일꾼들, 구체적으로 관리자(관장), 중간관리자(과장, 주무), 평사서의 직업의식과 기술의 질이 그에 값하는 수준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예외의 경우를 배제한 일반적 현상으로서, 그 주체세력의 배반성과 공동화(空洞化) 속에서 갈팡질팡 표류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었다.⁴⁾

이제 나의 위와 같은 대학도서관의 사람의 요소에 대한 진단이 일정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학도서관의 또 하나의 핵심요소인 장서부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좌절하며 분노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도서관 속에 사람의 요소가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고 한갓 아류로 전락해 있는 상황에서, 유독 장서만이 그 사람의 요소와는 무관하게 제대로 권위있게 구성될 수 있었겠느냐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위와 같은 논법이 아니더라도 나의 관찰에 따르면, 또는 나의 관찰 하나만으로도,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는 이를테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나의 관찰은 뒤에서 소개될 이용자그룹의 불만과 항의 속에서도 유보없이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에 대한 나의 전면적 부정이 솔직하게 인정된다는 전제 밑에 질문을 좀더 구체화시켜보자.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문제의 해답은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장서문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국한되는 문제일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 논의는 관찰범위의 제한성과 자료(archival materials)의 가용성이라는 두가지 조건때문에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기서의 문제의 제기, 논의 과정과 결론 모두가 이 나라에 대학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붙은 기관들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타당성을 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특별히 어렵게 설명할 필요없이 이 나라 안에서 성립되는 대학도서관의 조건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서로 맥이 통해 있으며, 거기가 거기인 면이 너무나 짙기 때문이다.

이상이 1990년 당시 내가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문제에 관하여 가졌던 느낌과 생각의 일단이다. 1993년 현재 나의 입장은 어떠한가? 나는 큰 변함이 없다라고 대답한다. 다만 지금은 그 때에 비하여 절망감의 수위가 조금 낮아진 대신 해결을 위한 전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올라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용자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부산대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이 도서관의 장서를 어떻게 보았는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내가 이 대학의 도서관장서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같은 시기 이 대학도서관의 주요객인 학생들과 교수진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 시기를 증언(witness)하는 중요한 자료(archival sources)를 확보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1987년 노태우의 6.29선언 이후 전

4) 앞에 나온 나의 "대학도서관운동에 있어서의 주체의 문제"(1990) 참조.

국에 불어닥친 정치자유화의 계절에 부산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학원자주화의 기치 아래 제 몫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 자료들은 당시 관련일꾼들의 일의 과정 속에서 당면한 일의 한 형태로서 생산된 것이기에 나와 같은 '연구자'를 위해서 일부러 생산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자료는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진다고 본다. 말하자면 주문생산의 인위성과 조작성이 배제된 자료라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자료를 두고 운동의 불길은 사라졌지만 운동가들의 정신은 자료 속에 살아남아 연구자들의 해석작업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붙여보기도 한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 자료들은 인위적인 조사의 결과 생산된 것이 아니고 사건과 행동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기에 '연구자'의 분석이나 해석의 기술이 첨가될 때 놀라운 정도로 진실에 대한 조망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⁵⁾

80년대 후반 부산대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측의 언급으로서 그 범위가 넓고 종합적이며 진지성의 정도가 높고 주장의 확신과 강도가 강했던 측면에서 백미를 이루는 것은 역시 대학생들의 목소리였다. 이 목소리는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당시 도서관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총학생회의 그것들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부산대학교도서관개혁운동(1987. 7. -1989. 2.)'의 형태로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운동기간 동안 모두 40편에 이르는 대자보 문장을 만들어 교내의 주요 지점인 신정문, 구정문, 금정회관, 중앙도서관, 과학분관, 재료관, 문창회관, 물리관, 상학관, 사법관 앞에 붙였으며, 같은 내용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매번 4,000부~6,000부씩 교내 전역에 뿌렸다. 대자보와 유인물은 거의 매번 장서문제를 언급하고 있었으며, 전적으로 장서문제만을 다룬 것도 많았다. 운동의 3주체는 대자보 문장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학본부와 '협상'하여 "총장공고문(1987. 10. 12)"과 "부산대학교도서

관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한 답변자료(1988. 11. 20)"의 형식으로 '약속'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1년 만에 걸친 이 운동은 80년대 부산대학의 학내운동으로서 가장 철저하고 끈질기게 추진되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운동 당시 대학 전체 구성원들로부터 광범위하고도 유보없는 지지를 확보해냄으로써 이후 대학본부와 대학의 전체 구성원들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심리적 지도(psychic map)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운동은 전공자인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내용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이에 연대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와 총학생회가 정치력부분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전공학생들의 관점은 그들답게도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전체 이용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했다. 학생운동의 특성이 매양 그러하듯 그 주장하는 바가 내용과 방향의 면에서 대체로 옳았다. 주로 전공학생들에 의해 작성된 문장의 내용은 대체로 '전문적'이며 치밀하였으며, 그 논조는 솔직하고 과감하였다. 물론 조사능력과 인식의 한계와 조급함때문에 사실의 면에서는 부정확한 면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그룹 이토스(ethos)와 공동사고과정을 거쳐 생산되어 나온 이들 대자보 문장들은 나와 같이 도서관의 문제를 여러 사람이 만들어 가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보원으로서 안성마춤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대자보 문장들은 대학구성원 일반을 독자로 상정하고 대중성 확보를 목표로 생산된 것이기에 우선 쉽게 씌어져 있다. 한번 읽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읽는 재미와 쾌감을 맛볼 수도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들은 동시에 풍부하고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다. 학생들이 대변하는 부산대 도서관의 이용자 일반의 대학도서관 장서에 대한 반응과 입장을 읽어내기 위하여 그들의 대자보 문장 가운데 관련된 부분들을 아래에서 제시하여

5) 아카이벌 소스(archival sources)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원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자료군의 정보원으로서의 장점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나의 신문 칼럼 "地方史자료" 「부산일보」, 1984. 9. 21. 를 참조하라.

본다. 운동주체의 인식과 느낌의 사실적 전달을 위하여 가능한 대로 필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소개해 보려고 한다.⁶⁾

자료 ①

도서관 당국에 의하면 부산대 도서관의 소장 장서수는 87년 3월 1일 현재 41만권을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사실 부산대학교 규모를 생각할 때 41만권의 장서는 결코 충분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더구나 이 41만권 중에서 두세권 또는 열권 이상씩 있는 복본을 제외하면 30만권도 채 못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어제 밝힌 바와 같이 전문서적, 예능계 도서, 학술잡지의 일부가 학과로 유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장 사서의 지적에 의하면 도서관을 처음 세울 때 그저 장서수만이라도 채우기 위해 각 학과에서 빌려와서 소장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되었던 상당수의 책이 차츰 학과로 다시 돌아가면서 목록만 있고 실제의 도서는 없는 경우도 제법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실된 것도 제법 많아서 연작으로 나온 문학작품이나 전집의 경우 이가 빠진 것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결국 부산대 도서관의 장서는 복본까지 장서수에 넣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야 그나마 41만권이라도 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부산대 도서관이 개가제를 회피해온 이유의 일부가 바로 여기에도 있지 않은가 한다.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매력을 느껴서 찾아오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대 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이용자들은 등한시하고 도서관의 본임무를 잊은 채 그저 공부장소나 제공하느라 왜곡된 형태로 효원벌의 구석에 멩하니 서있다.

대자보문장 “자료의 개념도 모르는 현장사서들은 자각하라!”(1988. 3. 17)의 일부

자료 ②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된 수서정책이다. 대학도서관 자료는 대학 내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부산대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3.5%정도 되는 교양도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술도서는 각 학과와 교수에게 일정금액을 할당하고 그에 따라 선정된 도서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만을 가진, 그런 장서를 구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현장의 사서들은 자기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장서의 질에 대한 기본법칙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수서의 과정을 거의 전부 각 학과와 교수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학과와 교수들은 즉각적이고 당장의 연구에 필요한 것을 선호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장서는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가 이용하기 위한 것이지 그 책을 추천한 사람이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학우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용이 적어지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도서관의 책은 ‘별볼일 없다’는 것이다. 즉, 단기적인 안목으로 당장 필요한 것을 선호하는 추천인들의 경향이 도서관의 장서를 일회적이고 독점적인 개인장서화하는 것이다. 현 실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당국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지금의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식의 현실안주적이고 체념일변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6) 학생들의 대자보문장 대부분과 그것에 관련되는 다른 문서들은 한 권의 자료집으로 간행되어 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부산대학교 도서관학과 학생회 엮음, 「부산대학교도서관개혁운동자료집 1987. 9-1988. 12」(1989)을 참조하라.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부산: 여름3미디어, 1993), pp. 243-277에도 “80년대 부산대 도서관개혁운동”이 일부 정리되어 있다.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부산대학교 도서관 현장에 끼친 영향과 그것에 자극을 받은 사서진의 자각과 의지에 기초하여 그 뒤 추진된 현장개혁 부분에 대하여는 부산대 도서관이 펴내는 「도서관소식」 창간호(1989. 4), 제 2호(1990. 3), 제 3호(1992. 8), 제 4호(1993. 2), 제 5호(1993. 6), 제 6호(1993. 11)를 참조하라.

분명히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한 두 사람의 개인장서는 아니다.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그리고 무성의한 수서정책을 계속 고집할 의도라면 도서관 조직내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수서과를 해체하든지, 아니면 도서관 수서과에서 받는 임금을 모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각 학과와 교수에게 할당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즉, 실제의 수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 수서과에 지급되는 보수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전체 수서의 3.5% 정도의 노동만 담당하고 나머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식의 눈가림식 작태의 댓가는 아니다. 다시한번 경고하거나 부산대 도서관의 수서정책은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책은 도서관 사서들의 손에 의해 모아져야 한다. 사서들의 손으로, 사서들이 주체가 되어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를 위한 장서수집을 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도서관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자보 문장 “장서개발에 문제있다.”(1988. 3. 16)의 일부

자료 ③

수서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도서를 수집하는 경로에 대해 알아보자. 부산대 도서관의 경우 86년도 통계에 의하면 구입에 의한 것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기증되어 오는 것이 16,318:17,860으로 1천 5백권 정도 많다. 기증되어 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서에 의한 선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수집, 보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기간행물실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의 선전책자(문공부간행물) 등은 실제로 도서관 자료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되지도 않는 이러한 책자들이 버젓이 2층 정기간행물실과 서고에 들어앉아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료의 질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장사서들의 지적 파탄상태를 여실히 드러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에 기증되어 오는 도서들은 반드시 전문사서의 책임있는 선정작업을 거쳐 선별적으로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정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서고만 채우고 있는 도서들을 그것도 자료라고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는 부산대 도서관 사서들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자보 문장 “장서개발에 문제있다.”(1988. 3. 16)의 일부

자료 ④

다음으로 도서관 자료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국내의 유수한 대학들이 이미 도서뿐 아니라 교육공학자료(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팸플릿자료 등 다양한 여러 형태의 자료를 준비해 놓고 이용자들의 연구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대 도서관은 과연 어떠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저 책에만 매달려 책만을 신주단지 모시듯 할 뿐이지 시청각자료나 마이크로자료, 팸플릿자료, 문서와 사진자료, 구증자료 등은 도서관에서 아예 소장할 수 없다는 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착오를 범하고 있다.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 다른 대학 도서관만 보더라도 부산대 도서관 자료가 그 다양성에 있어서 얼마나 빈약한 지 알 수 있다. 더우기 시청각자료에 있어서는 도서관 체제 속에 있던 것을 어학연구소로 이관시켜 그저 업무나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시청각자료에 관한 책임회피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이며, ‘시청각자료는 도서관 자료가 아니다’는 식의 사고에 젖어있는 결과라면 도서관 당국자의 무지를 탓할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일정한 정보를 종이에 담아 놓은 것이 책이며, 다른 매체에 담아놓은 것이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등의 시청각자료이기 때문이다. 자료의 종류에 관해서 현장 사서들은 새롭게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 자료를 어떻게 하면 이용자에게 이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자보 문장 “자료의 개념도 모르는 현장사서들은 자각하라!”(1988. 3. 17)의 일부

자료 ⑤

도서관은 학문과 사상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지적 흐름이 여러 면에서 가능해야 하는 곳이다. 우리들이 항상 귀중하게 여기는 학문, 사상의 자유가 맨 먼저 실현되어야 할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미국의 경우 도서관이 어떠한 의견과 견해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광장(forum)’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에 있어서의 자료선택은 시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료의 내용이 판단되어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부산대 도서관에서 열람이 금지되고 있는 각종 불문서적(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지만 편의상 사용)들은 역사적,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목적에 위해서 열람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서관의 주인인 많은 학우들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도서관은 ‘금서’라고 하면 그저 칼날같이 지키려는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사고방식에 젖어 학문과 지식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 당국은 마땅히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봉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도서관 사서들이 아직도 도서관을 사서의 편의에 따라 운영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하면 이용자들도 어쩔 수 없으리라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젖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 망상을 깨부수고 나오기 바란다.

대자보 문장 “자료의 개념도 모르는 현장사서들은 자각하라!”(1988. 3. 17)의 일부

자료 ⑥

어제 나간 시리즈에서 잡지의 생명은 정보의 최신성에 달려 있으므로 잡지의 수집은 발간과 동시에 되어야 하며, 창간에서부터 한권도 빠짐없이 계속적

으로 이용자에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천명되었다. 그러면 이상의 원칙에 비추어 우리 대학도서관 정기간행물 수집실태를 분석해 보자.

문학, 언어, 철학, 종교, 역사, 미술, 음악의 7개 학문분야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잡지를 선정하여 결호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잡지는 결호가 상당히 많았다. 그 중 몇개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문학 :

국내잡지인 ‘문학사상’은 1972년에 창간된 것으로 부산대에서는 1972년부터 1986년까지 수집되어 있는데, 그중 1973년 3월호, 4월호와 1976년 3월호, 4월호, 5월호, 6월호 그리고 1970년 3월호와 4월호가 빠진 채로 수집되어 있다. 외국잡지로는 1959년에 창간되어 일년에 4번 발행되는 ‘Criticism’은 1965년의 8호부터 수집하였는데 그 중 10호, 18호, 19호, 22호가 결호이다.

철학 :

국내잡지인 ‘철학’은 1호, 2호, 7호, 8호, 10호, 11호~24호, 25호~36호가 결호이며, ‘한국사상’은 1974년 11호만이 수집되어 있어 그 이용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잡지 ‘Journal of Philosophy’는 격월간 잡지로서 1964년의 41호부터 수집되기 시작하여 82호까지 있는데, 그중 66호와 67호가 빠진 채였고 ‘Philosophical Review’는 일년에 4번 발행되는 잡지인데 그것도 1955년에 64호부터 받기 시작하였는데 65호, 67호, 68호, 70호, 71호, 72호, 75호~89호가 빠진 채로 수집되어 있다.

역사 :

1952년에 창간된 ‘역사학보’는 27호, 28호, 45호 그리고 81호~103호까지 무더기로 빠져 있으며 그 것조차도 1984년까지 밖에 수집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일년에 5번 발행되는 ‘American Historical Review’는 1953년의 58호부터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61호, 62호, 67호, 68호가 없다. 그리고 월간인 ‘Journal of Asian Studies’도 1958년의 17호

부터 1986년의 45호까지의 수집중에서 31호, 32호가 없다.

이상은 문학, 철학, 역사 3영역의 잡지를 아무것이나 무작위로 뽑아 점검해 본 결과이다.

첫째, 눈에 띄는 것이 결호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10호 내지 20호씩이나 무더기로 이가 빠진 잡지들도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서의 직업의식이 의심스럽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우리 대학도서관에서는 그 결호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수집한 게 어디냐는 식으로 이빠진 내용을 기록한 목록함은 몇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둘째, 대부분의 외국 학술잡지의 경우 그 구입시기가 상당히 늦다는 사실이다. 잡지의 생명은 신속한 정보와 지식의 전달에 있다. 그 구입이 늦다는 사실은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된다. 따라서 정간실의 사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잡지구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착이 지연되거나 안된 잡지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화나 편지로 연락을 취해 입수해야 하며, 도저히 입수 불가능한 잡지에 대해서는 타 대학도서관이나 일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빌려와 복사해서라도 한권도 빠짐없이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위에 든 것은 단지 몇몇 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잡지수집에 '이가 빠져있다.' 부산대 도서관 잡지수집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이것이 어떻게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겠는가! 우리는 아연실색한다. 사서들은 이용자를 무엇으로 보는가? 이용자가 원하는 잡지호수가 없을 때 아무렇게나 얼버무리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다. 사서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범한 양의 결호를 메꾸어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대자보 문장 "부산대학교 도서관 잡지자료 실태분석 : 문학, 역사, 철학분야 잡지"(1988. 3. 22)의 전부

자료 ⑦

어제 나간 시리즈에서 우리 대학도서관의 정간실 잡지 중 문학, 철학, 역사부분에 대해 상당수의 결호가 있다는 사실과 그 구입시기가 상당히 늦어져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인 언어, 종교, 미술, 음악 분야에 대해 살펴보자.

언어 :

한글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글'은 1932년에 창간되어 85년 여름호까지 수집되어 있는데 그중 109~133호, 138호, 140호, 143호, 156호, 173호, 174호가 결호임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중어중문학회에서 1979년부터 발간한 '중어중문학'은 3집, 4집이 빠져있다.

종교 :

1971년 창간된 '불교'는 월간인데 1권, 3권, 6권, 8권이 없으며, 어느 한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입수되어 있는 해는 드물다. 그리고 대한 기독교서회의 월간잡지 '기독교사상'은 1985년의 1월호부터 10월호까지 밖에 없다.

미술 :

'Art in America'가 1976년 64호부터 수집되어 있는데 그 중 65호가 결호이며, 얼마전에 '문화예술'로 잡지명을 변경한 '문예진흥'은 1975년의 1월호~12월호, 1976년의 1월호~3월호, 5월호~12월호, 1987년의 5월호~8월호, 1979년의 1월호~4월호, 1980년의 11월호~12월호, 1981년의 1월호, 3월호, 4월호가 없으며, '미술세계'는 1984년의 10월호~12월호, 1986년의 1월호~4월호가 없다.

음악 :

1965년에 창간되어 일년에 4번 발행하는 'Musical Quarterly'는 1976년의 제 62호부터 수집했는데 그 중 63호가 없고, 동아일보사에서 월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음악동아'는 1984년에 창간되었는데 그 해 4월호부터 12월호까지 빠진 채로 수집되어 있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사서들의 직업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잡지의 특징인

계속성과 최신성을 살려 효과있게 이용시키기 위해 잡지를 수집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생각나면 한편씩 수집해서 우리 도서관에도 이런 잡지가 있다고 과시하려고 하는건지. . . 더욱 한심한 것은 어떤 잡지는 불과 2, 3년전의 것조차 결호인 채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예 음악동아, 미술세계) 몇 십년전의 것도 아닌데 왜 결호를 매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정간실의 사서들은 자기 할일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그저 최근호 잡지들을 전시해 놓고서 누가 그 잡지를 오려가지 않나, 들고 가지 않나, 가방을 들고 정간실에 들어오지 않나 학생감시에만 정신이 팔려있을 뿐이란 말인가?

그리고 또 한가지 웃기는 사실은 학생들의 요구에 큰 무기나 방패나 되듯이 예산부족, 공간부족하고 외쳐되면서 한편, 대학의 정간물실에 과연 비치되어야 하는 잡지를 구비, 비치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월간 여성잡지와 회사 선전물 등이다. 물론 전체 잡지의 종류에 비하면 적은 수를 차지하겠지만 오락용으로 휴게실 같은 곳에서 읽고 지나쳐도 될 내용의 잡지를 부족한 공간에 전시하고 또 그 많은 지난 호는 서고에 마치 가치있는 보물인양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정기간행물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이 구입하고있는 잡지의 질과 양에 따라 그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써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잡지구입은 최대한 신경을 써야만 완벽을 기할 수 있으며, 잡지를 도서관의 자료로 선정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즉, 먼저 그 잡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한번 선정된 자료는 쉽게 바꾸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공분야에도 매우 많은 종류의 잡지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도서관예산으로 보다 지적으로 우수한 잡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정기간행물은 도서관의 부분적이며 제한된 의미의 정보전달 매체로 이용되어져 왔으나 앞으로의 전망은 정기간행물만을 위한 도서관이 설

립될 정도로 도서관의 중심매체로 발전될 것이 확실 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서는 현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인식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학문탐구와 교양, 상식을 넓혀 나가는데 일반도서관과 더불어 그 원동력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의가 없다면 그대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도서관의 잡지업무는 놀이도 아니며 장난도 아니다.

대자보 문장 “부산대학교 도서관 잡지자료 실태분석 : 언어, 종교, 미술, 음악분야 잡지”(1988. 3. 22)의 전부

자료 ⑧

참고열람실은 대학도서관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부분으로 대학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참고실의 규모와 참고자료, 참고사서의 수는 많아지게 마련이고 이용도 활발하게 된다. 사실, 참고자료는 참고봉사 수행에 있어서 참고사서, 시설 설비와 더불어 3대 요소가 된다. 아무리 능력있는 주제전문 참고사서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참고자료의 구비없이는 성공적인 참고봉사의 수행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부산대 도서관 참고열람실에 비치되어 있는 참고자료는 질적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양적인 면에서조차도 미비하기 짝이 없다. 도저히 종합대학교 도서관의 참고열람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정도이다. 도대체 사서들은 이 정도의 참고자료들로 어떻게 도서관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참고봉사를 수행해 왔는지 의심스러우면서도, 그 능력에 존경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정도로써 충분하다고 기만적으로 자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봉사는 제쳐두고 그나마 얼마 안되는 자료의 분실을 막는데만 급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실 이같이 말하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 ‘인문과학자료’라는 과목이 있다. 학과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때 이 과목을 들으

세계문학	20/82	철학	22/61	언어일반	17/72	미술	33/93
한국문학	24/48	종교일반	6/64	한국어	16/23	음악	11/97
중국문학	5/54	불교	9/55	중국어	7/32	기독교	5/23
한국사	43/88	세계사	14/86	참고실 소장 title 수 /교재에 소개된 title 수			

면서 윤병태 지음 「인문 사회과학 정보원」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부산대 도서관의 참고자료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소장여부를 가리는 작업이다.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여 얻은 결과에 누구나 비참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지난 학기 우리들의 발견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문학의 중요 참고자료 총 82 title 중 20 title, 한국문학 관계 참고자료는 48 title 중 24 title, 중국문학은 54 title 중 5 title이 본교 도서관 참고실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계사 관계 자료는 86 title 중 14 title이 있었고, 한국사 관련 자료는 총 88 title 중 43 title이 있을 뿐이었다. 철학관계 주요 참고자료 61 title 중 부산대 참고실 소장자료는 22 title에 불과했으며, 일반 종교관계는 전체 64 title 중 6 title이며, 그 중에서도 불교 관계 참고자료는 55 title 중 9 title, 기독교관계는 23 title 중 5 title에 불과했다. 언어분야 참고자료는 총 72 title 중 17 title이 있을 뿐이며, 그 중 한국어 관계자료는 23 title 중 16 title, 중국어 관계는 32 title 중 7 title뿐이었다. 그리고 미술분야 참고자료는 전체 93 title 중 33 title 뿐이었고 음악관련자료도 총 97 title 중 11 title이 있었다.

부산대 도서관의 참고자료 실태,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단호히 대답한다. 아니! 아니! 아니! 라고.

대자보 문장 “부산대 도서관의 참고자료 이대로 좋은가? (1)”(1988. 3. 24)의 일부

자료 ⑨

오늘은 먼저 부산대 도서관의 고서수집 측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바람직한 고서수집방향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과는 달리, 좀더 전문적인 학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하는 고서 역시 보편적 학문가치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사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도서관이든 각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향토적인 특색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학도서관의 고서수집 역시 그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학문사적, 문화사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부산대 도서관의 고서수집 업무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 것일까? 현재 부산대 도서관에서는 고서의 대부분을 기증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입수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사서가 없어 입수된 고서에 대한 전문적 비판을 가하지 못하며, 그에 따라 양적인 증가만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대학학생들의 학문연구에 적합한 양질의 고서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양적으로 살펴볼 때 규장각의 16만권, 장서각의 8만권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더구나 같은 대학도서관인 연세대 도서관의 7만권에도 크게 뒤떨어지는 약 1만 5천권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위치적 시각에서 볼 때 부산대 도서관은 영남지방에 속한 만큼, 조선시대 학문의 맥을 이루어왔던 영남학파의 산실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방의 명문으로 자처하고 있는 부산대 도서관은 이 지역의 학문적, 향토적 특색을 살린 양질의 고서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대 도서관에는 모든 자료들 중에서도 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인 고서수집을 담당하는 전문사서가 없어 고서수집은 자연히 수동적 기증방식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방역사의 흐름을 고서로서 수집하는 능동적 장서개발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서자료의 공급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국학관계, 문학, 역사, 철학관계 연구자들은 부산대 도서관을 고서자료의 원활한 공급원으로서 인식하거나 기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부산대 도서관의 고서수집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다음의 두가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고서부분을 담당하는 전문사서가 그것이며 둘째, 전문사서를 중심으로 한 고서의 장서개발이 그것이다. 우리는 부산대 도서관이 이 두가지 점에서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하여 둔다.

대자보 문장 “부산대 도서관 고서(古書)관리에 대한 우리의 견해 : 고서의 수집문제”(1988. 3. 28)의 일부

위의 대자보문장들을 통해 볼 때, 학생들은 부산대 도서관 장서의 질과 양에 대하여 결코 후한 점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전면적인 부정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자료①과 자료②의 다른 부분에서 학생들은 우선 장서점점을 요구하고 있다. 허울좋은 40만권만 선전하지 말고 진짜 몇 권이나 보

유하고 있는지 정확한 장서보존 상태를 점검하여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분실된 자료, 부당하게 유출된 자료를 언제까지 숨길 것인가를 따지고 있다.

자료②에서 학생들이 “수서정책”의 문제로 파악했던 것은 실은 자료수집의 헤게모니(hegemony)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로 이 문제는 대학도서관 장서문제의 핵심영역으로서 그 때나 지금이나 대체로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다. 학생들은 여기서 교수추천제도의 무오류성(infallibility)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대학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담보해 내기 위하여, 그리고 현재의 이용자뿐만이 아닌 미래의 이용자까지를 고려한 자료수집을 담보해 내기 위하여 교수진 아닌 사서진이 대학도서관 자료수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실로 과감한 주장을 펴고 있다. 나는 이 대목은 과연 전공학생들다운 면목을 여지없이 드러낸 순간이었다고 본다. 학생들은 말한다. “책은 도서관 사서들의 손에 의해 모아져야 한다. 사서들의 손으로, 사서들이 주체가 되어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를 위한 장서수집을 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도서관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⁷⁾

자료③은 구입자료와 수증자료간의 양적 발란스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도서관의 매우 아픈 자리, 한 취약지점을 건드린 것이다. 학생들은 당시 대학도서관이 장서의 양적 성장을 의식한 나머지 지나칠 정도로 수증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그 수증자료들이 “전문사서의 책임있는 선정작업을 거쳐 선별적으로” 장서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문제는 90년대에 들어와 일대 수술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⁸⁾

자료④는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이 자료의 다양성에

7) 대학도서관 자료수집의 헤게모니 문제와 수집과정에 있어서 사서진의 참여정도 문제에 대하여는 이상재 등, “단행본 수집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도서관소식」(부산대 도서관) 제 3호(1992. 8) : 4-24, 유익봉 등 “연속간행물 수집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도서관소식」 제 3호(1992. 8) : 25-45와 「第19次 國公立大學(校) 圖書館 情報學 學術세미나 發表資料, 1992. 8. 21-8. 22」(부산대 도서관)에 실린 손 정아의 “단행본 수집업무 전문화의 문제”(pp. 19-35), 신주영의 “연속간행물 수집업무 전문화의 문제”(pp. 36-56)를 참조하라.

8) 수증자료 관리문제는 90년대에 들어와 부산대 도서관의 재규칙이 확립되어 업무과정에 적용됨으로써 해결을 보게 된다. 도서관 발전기획반, “도서관 재규칙(이렇게 준비되고 있다.” 「도서관소식」(부산대 도서관) 제 4호(1993. 2) : 61-76를 참조하라. 특히 이 가운데 “단행본 등록규칙”과 “연속간행물 등록규칙”을 주목하라.

눈을 돌리지 못한 채 고민없는 자세로 안주해 있는 모습에 주목한다. 자료는 사서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저 책에만 매달려 책만을 신주단지 모시듯 할 뿐이지 시청각자료나 마이크로자료, 팸플릿자료, 문서와 사진자료, 구증자료 등은 도서관에서 아예 소장할 수 없다는 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착오를 범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다른 대자보 문장은 “89년 중으로 microfilm reader/printer와 microfiche reader/printer를 우선 구입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11. 10. 25)고 적고 있다. 당시 부산대 도서관의 상황을 여실히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료⑤에서 학생들은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금서”, “불온간행물”, “공산권자료”, “특수자료” 등으로 불리는 일련의 자료의 관리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사회의 기초조건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료가 개방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다.

자료⑥과 자료⑦은 학술지 수집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료자체가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듯이 당시 결호문제는 심각한 정도였다. 학생들은 “어떤 것은 10호 내지 20호씩이나 무더기로 이가 빠진 잡지들도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서의 직업의식이 의심스럽다.”라고 적고 있다. 학생들은 기왕에 생긴 결호의 보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결호문제만큼이나 문제되었던 것이 신속성문제였다. 대자보는 “잡지의 생명은 신속한 정보와 지식의 전달에 있다. 그 구입이 늦다는 사실은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된다. 따라서 정간실의 사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잡지

구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꾸짖고 있다. 또 하나 학생들이 파악한 학술지업무의 문제영역은 수집의 기준문제였다. 타이틀마디의 타당성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자보는 “따라서 잡지구입은 최대한 신경을 써야만 완벽을 기할 수 있으며, 잡지를 도서관의 자료로 선정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즉, 먼저 그 잡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한번 선정된 자료는 쉽게 바꾸어서는 안된다.”라고 한다.

학생들은 여기서 담당사서들의 “직업의식”, “사명감”, “최선”을 아쉬워 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호, 신속성, 타당성의 문제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도서관 외적 환경문제(공급업자, 유통구조)와 내적 환경문제(행정직과 사서직간의 이해관계)까지를 보지 못한 것은 학생들의 한계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⁹⁾

자료⑧은 참고조사자료의 질과 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자보의 끝부분에서 학생들은 자문자답한다. “부산대 도서관의 참고자료 실태,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단호히 대답한다. 아니! 아니! 아니! 라고.”

자료⑨는 고서수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그 때나 지금이나 타당성을 갖는 아픈 지적으로 보인다. 반복해 본다. “그렇다면 부산대 도서관의 고서수집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다음의 두가지가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첫째, 고서부분을 담당하는 전문사서가 그것이며 둘째, 전문사서를 중심으로 한 고서의 장서개발이 그것이다.”¹⁰⁾

이상이 80년대 후반 학생들이 본 부산대 도서관

9) 학술잡지의 ‘가격문제’, ‘결호문제’, ‘신속성문제’는 90년대 들어 부산대 도서관 자체 내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해결을 보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구미학술지 구독방법 개선.” 「부산대소식」(부산대 기획연구실), 1993. 12. 2, p. 6을 참조하라.

10) 다음을 참조하라. 황창재, “고전자료 서비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이전과 관련하여” 「도서관소식」(부산대도서관) 제 6호(1993. 11) : 5-8 ; 류준정, “고전자료실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 19집(1992) : 115-144 ; 송정숙, “대학도서관에서의 고전자료 개발방안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25집(1993. 12) : 215-232

장서의 실상이다. 사실의 면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뿐 진실의 면에서는 우리가 없는 관찰이었다고 본다. 지금의 현장도 큰 줄기는 그때나 마찬가지로이다. 여전히 황폐한 그대로다. 90년대의 과제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4.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에 대신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이른바 서울지역을 제외한 한강 이남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학도서관 장서의 실정이 이러할 때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의 사람들의 다음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범위를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부산대 문헌정보학과와 강단측과 부산대 도서관의 현장측의 내일부터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장이 이처럼 지극히 '기본적인' 문제들에 걸리고 갈혀 허덕이고 있을 때 그대들은 엄치도 코치도 없이 여전히 '첨단'이다, '미래'다 할 것인가? 현장의 현 단계가 지극히 '원시적인' 문제들에 둘러싸여 한치도 앞을 못나가는데도 그대들은 '21세기'를 말하며 낮과 밤을 지새울 것인가?

나는 이나라 도서관문제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비유를 떠올리게 된다. '우리의 도서관현실은 아직 세포조직이 발달하지 못한 아메바의 단계에 있다.' '우리의 도서관현실은 아직 고등동물의 경우와 같은 복잡한 세포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 지극히 초보의 단계, 아직은 초기의 개척단계

에 있는 우리의 엄연한 도서관현실을 눈앞에 두고 성장에 필요한 기초를 다지려 들지 않고 나라 바깥의 남이 하는 대로 말단 지엽 첨단에만 눈이 쏠린다는 것은 전술의 일대 실수라고 본다. 이 전술에서 무슨 힘이 생겨 나겠는가? 나는 여기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함몰되어있는 '계국주의'학문의 커다란 함정을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다음의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거기서 나오는 대담에 따라 정직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첫째, 우리의 노력은 '기본'(basic)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둘째, 우리의 노력은 '현장'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셋째, 우리의 노력은 '현단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이 세가지의 질문에 기초하였을 때 이 땅의 도서관문제의 제3세계적 성격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우리의 노력은 적실성(relevancy)과 실천성(praxis)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¹¹⁾

이제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들에 기초하여 장서문제를 한번 더 살펴보자. 장서문제는 도서관문제가운데 '기본'중의 기본이다. 이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나는 지금 우리의 현장, 그 현장의 현 단계는 '고전적 도서관'의 완성을 소리높여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고전적 도서관의 완성에는 일차적으로 '고전적 장서'의 완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고전적 도서관의 완성, 고전적 장서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따로 긴 설명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대들은 하버드대학 사서

11) 이 세가지 질문은 내가 80년대 이래 우리 학문의 적실성 문제와 실천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현장과 강단을 관찰해 오던 동안, 그리고 특히 나의 '제3세계 도서관방법론', '도서관사상가연구', '문헌정보학사연구' 강좌를 통하여 수강생들과 토론하는 사이에 오랜 시간 속에서 정리되고 결집된 실험적 생각의 일부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나는 이 질문들이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나의 수강생들이 기여한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높이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세 질문은 그 소유권이 '공동'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강좌들을 거쳐 간 사람들은 모두 15명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류준정, 이수상, 윤현옥, 장덕현, 김영기, 배지숙, 조영주, 김종성, 오영아, 이용재, 전해영, 김수경, 이연옥, 이영빈, 최경희. 그리고 이 세가지 질문이 움이 터서 결집될 수 있도록 은근히 옆에서 돕고 뒤에서 미는 역할을 한 '후원자'그룹이 있다.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박인용교수, 최정태교수, 송정숙교수로 구성된 교수진이다.

들의 등뒤를 보았는가? 시카고대학 사서들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 런던대학 도서관 사서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보았는가? 나는 그 힘은 다른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서가' 그들의 '장서'에서 나올 뿐 다른 아무데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¹²⁾ 나는 우리의 해결책은 사투한 생각을 버리고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한 역사의 길을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열릴 것이라고 본다.

이제까지의 긴 논의에 근거한 나의 결론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표현대로 '만신창이', '염망진창'의 부산대 도서관 장서에 대한 치유책은 무엇인가? 나

의 문제제기, 나의 관찰, 이용자의 인식에 기초하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나는 이렇게 본다. 그들은 코르스를 이루어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고 본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평범한 진실을 새롭게 실천적으로 끌어안도록 유도한다고 본다. 그것은 장서는 사서진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체계에 따라 개발(develop)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장서는 그냥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장서는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자연스럽게 다음의 논제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로 넘어가게 된다.¹³⁾

12) 통계에 의하면, 90년대 초 현재 하버드대학 도서관은 모두 1천2백4십만권, 시카고대학은 5백4십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ARL Statistics 1991-92), 런던대학 도서관의 경우는 장서 약 600만권을 소장(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198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들 도서관은 엄청난 종수의 연속간행물을 수집하고 있다. 하버드대학은 9만6천 종, 시카고대학은 4만6천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3) 나는 이 논문의 후속편이 되는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를 1993년 겨울방학 동안에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방학은 내가 부산대 도서관장(재임기간: 1991. 11. 21 - 1993. 11. 30)으로 있는 동안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빼앗긴 네차례의 방학 다음에 맞는 첫번째 나 스스로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실로 '해방'의 감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